

# 3개 대회 연속 동메달...안세영 결승 문턱 넘기 힘들네

### 배드민턴 월드컵 파이널 준결승 세계 1위 타이쯔잉에게 0-2 패배 여자복식전 이소희-신승찬 우승

올해 실업팀 소속으로 세계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안세영이 3개 대회 연속 동메달에 그쳤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9위 안세영은 3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컵 투어 파이널 2020 조별리그 준결승전에서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타이쯔잉(대만)에게 달미를 잡았다. 스코어는 0-2(18-21 12-21).

그러나 처음 출전한 파이널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2개대회에서도 안세영은 동메달에 그쳤다. 세계 랭킹 6위 마린(스페인)에게 4강전에서 두 차례나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HSBC BWF 월드컵 투어 슈퍼 1000 토요타 태국오픈 4강전에서 카롤리나 마린에게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 안세영과 마린의 상대 전적도 1승 4패로 벌어졌다. 안세영은 지난 16일에도 태국 방콕에서 열린 BWF 월드컵 투어 슈퍼 1000 태국오픈 4강전에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에게 0-2(18-21 16-21)로 저결승 진출에 실패, 최종 3위를 거뒀다. 월드컵 투어 파이널 2020 복식은 한국의 독무대였다.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동갑내기 듀오 이소희-신승찬(이상 27·인천국제공항)이 '킴콩'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왕중왕'에 올랐다. 이소희-신승찬은 3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HSBC BWF 월드컵 투어 파이널 여자복식 결승에서 김소영-공희용을 2-1(15-21 26-24 21-19)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BWF 월드컵 투어 파이널은 배드민턴 국제대회의 한 시즌을 정리하는 대회로, 각 세부 종목 상위 8명(팀)의 선수만 출전해 최강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대회가 즐

즐이 취소·연기된 탓에 해를 넘겨 열렸다. 세계랭킹 4위인 이소희-신승찬은 지난주 토요타 태국오픈에서도 세계랭킹 6위 김소영-공희용과 결승 맞대결을 펼쳤다. 당시 경기에서는 김소영-공희용이 금메달, 이소희-신승찬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소희-신승찬은 2019년 10월 코리아오픈에서도 결승전에서 김소영-공희용에게 패해 우승을 놓친 아픈 기억이 있다. 이소희-신승찬은 이날 1게임에서 6점 차로 크게 패해 2주 연속 은메달에 머무는 듯했다. 그러나 2게임에서 듀스 집는 끝에 승리를 따내며 전세를 뒤집었다. 3게임에서도 이소희-신승찬은 팽팽한 추격전 끝에 승리, 설욕에 성공했다. 이소희-신승찬은 지난해 3월 전영오픈 동메달을 거둔 이후 코로나19로 10개월간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이날 태국에서 3주 연속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요넥스 태국오픈 동메달, 토요타 태국오픈 은메달, 파이널 대회 금메달을 땀다. 국제대회 금메달은 2019년 10월 프랑스오픈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안세영이 지난 3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컵 투어 파이널 준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 타이쯔잉(대만)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 10위가 탈락...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의혹 제기

### 여자복식 정경은 국민청원

"2021년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주시시오."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경은(31·김천시청)이 2021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9일 게시된 이 글은 31일 오전까지 약 2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경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의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국가대표선발전은 펄 선수들은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경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복식 동메달을 목에 건 세계적인 선수다. 정경은

은 2019년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꾸준한 기량을 유지했고, 현재 백하나(21·MG세마을고)와 함께 여자복식 세계랭킹 10위에 올라 있다. 정경은은 지난 18~23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으나 태극마크를 잃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올해 복식 여자 선수 12명에게 태극마크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세계랭킹이 높거나(8위 이상)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를 이어 자동으로 태극마크를 유지했다. 정경은과 백하나 선발전에서 5위 안에 들어가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백하나 선발전은 3위로 통과해 태극마크를 지켰지만, 정경은은 5위 밖으로 밀려 탈락했다. 정경은은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 중 내정자가 있

었다는 듯한 소문이 돌았고, 해당 선수가 실제로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며 '부정 선발'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은은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모 심사위원이 특정 선수를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전해 들었다"며 "이미 특정팀 선수의 선발이 정해진 듯한 발언으로 소문이 급속히 퍼져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6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은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의 지도자들이었다"며 심사위원 구성 자체도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은은 이어 최종 명단이 공식 발표되기 전 모 선수에게서 선발된 선수들의 명단을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명단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누워서라도...치열한 볼 쟁탈전 31일 샌안토니오 AT&T 센터에서 열린 2020-2021 NBA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넘어진 채 볼 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세영 '올해의 여자 선수'

### 미국골프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남자선수는 더스틴 존슨

김세영(28)이 미국골프기자협회(GWAA)가 뽑은 2020년 올해의 여자 선수로 선정됐다. GWAA는 올해의 여자 선수 투표에서 김세영이 69%의 지지를 얻어 대니엘 강(미국)을 제치고 2020년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29일(한국시간) 발표했다. 김세영은 지난해 10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해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고, 11월 펠리컨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를 차지한 바 있다. GWAA 올해의 선수상을 처음으로 받은 김세영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 나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은 기분"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남자 선수로는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이 뽑혔다. 11월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2020년 한 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4승을 쌓은 존슨은 93.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시니어 선수상은 베른하르트 랑거(독일)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마스터스 때 63세 2개월 18일의 컷을 통



김세영

과해 최고령 기록을 세우고 PGA 챔피언스투어에서도 활약을 이어간 그는 41%의 득표율로 어니 엘스(남아공·35.6%)를 따돌리고 통산 6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GWAA 올해의 선수 시상식은 4월 마스터스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려왔으나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돼 추후 다른 시일에 수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윤성빈 마지막 월드컵서 아쉬운 4위

'아이언맨' 윤성빈(27·강원도청)이 시즌 마지막 월드컵에서 아깝게 입상에 실패했다. 윤성빈은 29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2020-2021 국제빙슬레이스켈레톤 경기연맹(IBSF) 월드컵 8차 남자 스킵레톤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45초88을 기록해 4위에 자리했다. 인스브루크 트랙에 강한 알렉산더 트레티야코프(러시아)가 1분45초59로 우승을 차지했고 크레이그 톰슨(1분45초82·영국), 사무엘 마이어(1분45초86·오스트리아)가 2, 3위에 올랐다. 6차 월드컵에서 동메달, 7차 월드컵에서 은메달

을 따낸 윤성빈은 이번 대회 4위에 그쳐 3개 대회 연속 입상에 실패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지각 출전' 한 올 시즌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포디엄에 오른 것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다. 6차 대회는 윤성빈이 11개월 만에 달린 실전 레이스였다. 우여곡절 끝에 출전한 월드컵 3차례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윤성빈과 정승기, 김지수는 내달 5-14일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리는 IB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시즌 마지막 레이스를 펼친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세자매
4관	소울, 런
5관	소울,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6관	소울
9관	소울, 북스마트
7관 씨네키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커넥트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8관 씨네키움	캐롤, 커넥트, 도굴, 이웃사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